

<하기 글은 2017년 1월 17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지난 한 해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새해 각오를 다졌던 1월 정기회의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지난 1월 11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2017년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먼저 지난 3개월간 접수된 주요 민원 내용과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통협의회 위원들과 주민들이 전해주시는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들도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장 인근 주택가 주차 불편 민원인데요. 12월에도 기흥구 농성동 인근 주택가에서 주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임직원 외에도 상주 협력사에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점검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말연시, 임직원들이 결연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가정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생필품과 방한용품을 선물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보행 약자에게 든든한 두 다리를 선물하는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 지원' 활동이 소통협의회 위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는데요. 맞춤형 기기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매년 봄-가을 사업장 주변을 걸으며 모금한 '사랑의 달리기' 성금의 일부로 마련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Cafe 휴(카페 휴)' 사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12월 28일, 새롭게 문을 연 용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점(11호점)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응원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2017년에 진행될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정기회의를 마치며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김분섭 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서능동 김분섭 위원 /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지켜 봐주시고 큰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할수록 더 행복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의 노력은 계속될 텐데요. 소통협의회 위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의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